

제2회 <나의 아름다운 딸, 딸들에게 희망을!> 사진전 시나리오

박영숙 이사장님

(기획홍보팀 윤정희 작성)

- ① 딸들이 안전하게
- ② 여성이 인권과 존엄을 누릴 수 있도록
- ③ 나눔문화 확산

1. 시작 인사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여성재단에서 5월마다 진행하는 여성희망캠페인은 한국여성재단의 대표적인 모금캠페인입니다. 5월은 돌봄과 보살핌 문화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올해 캠페인에서는 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곧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점을 알리고자 합니다. 여성의 빈곤과 폭력이 날로 심화되고 있고,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현실에서 여성재단은 사회적 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밝고 아름다운 딸들의 모습을 담은 <나의 아름다운 딸, 딸들에게 희망을> 사진전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사진을 통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보여주고, 또 시민들이 사진을 찍고 사진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시회를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여성재단의 다양한 사업과 활동들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직접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인 수상자 여러분,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또 이 사진전을 위해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조세현 작가님, 올해도 참여해 주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진점단 일우도 사진전을 더 빛내주셨습니다. 시청역과 폐퍼밀도 전시회를 위해 공간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정성이 여성재단을 통해서 딸들에게 밝음과 희망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2. 마무리 인사

(사진 보시고 간단한 평가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수상자 사진, 일
우 사진)

여기에 오시진 않으셨지만 사진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과 모금활동에 동참해 주신 시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는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재단과 딸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재단 또한 우리의 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